

日 열도 홀린 뉴진스... “새 전설 만들어”

26~27일 도쿄돔서 열린 '버니즈 캠프 2024' 팬미팅 관객 9만1000여 명 동원 현지 매체 호평 이어져

지난달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그룹 뉴진스의 현지 팬 미팅 '버니즈 캠프 2024 Tokyo Dome'에 대한 현지 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29일 전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산케이스포츠는 “여신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설을 만든다”고 보도했고, 닛칸스포츠는 “컬러풀한 의상과 화려한 춤으로 공연장을 들뜨게 했고, 격렬한 함성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고 평가했다.

소속사는 팬미팅 공연 기간 현지 스포츠 신문들이 뉴진스를 1면에 내세운 특별판을 제작해 판매했으며, 특별판은 일부 편의점에서 동이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나탈리 등 현지 음악 전문 매체는 뉴진스 멤버들이 통역 없이 무대에 오를 점에 주목했다. 특히 마쓰다 세이코(松田聖子)의 히트곡 '푸른 산호초'를 부른 하나의 솔로 무대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오리온뉴스는 “1980년대 아이돌 노래를 청량하게 부르고 환한 미소를 띠며 객석을 감미로운 분위기로 만들었다”며 “‘푸른 산호초’ 무대



뉴진스를 보도한 일본 현지 매체들.



뉴진스 일본 도쿄돔 팬미팅.

는 X(엑스·구 트위터)에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 트렌드에도 오르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도쿄돔 팬 미팅으로 이틀간 관객 9만1000여 명을 동원한 뉴진스는 일본 현지 음원 차트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인 '슈퍼

퍼내추럴'(Supernatural)은 27일 스포티파이 재팬 '데일리 톱 송' 차트에서 전날보다 4계단 오른 14위를 기록했다.

애플뮤직 재팬 '톱 100' 차트에서는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11위, '슈퍼내추럴'이 1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가수로 돌아온 야구스타 양준혁

신곡 '한잔 더 하세' 발매

프로야구 선수 은퇴 후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준혁이 29일 오후 6시 신곡 '한잔 더 하세'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 사진

양준혁의 가수 데뷔곡인 이 노래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디스코 풍의 멜로디가 특징이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잔

을 기울이며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사실적인 가사로 담았다.

소속사는 “평소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힌 그는 이 곡을 계기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래 실력과 자신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혁은 2010년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한 뒤 현재는 방송인이나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MBC 예능 '복면가왕'에 출연해 노래 실력을 뽐낸 바 있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List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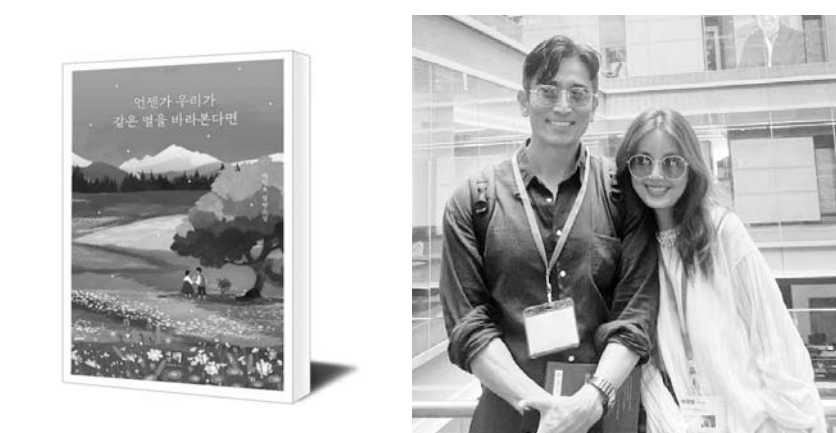
차인표 소설,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 선정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의 소설이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학의 필수 도서로 지정됐다.

차인표의 배우자인 배우 신애라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소설이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선정됐다”며 “다음 학기부터(차인표의 소설이) 한국학과와 교재로도 사용되고 옥스퍼드대 모든 도서관에 비치된다”고 전했다.

신애라는 이 글과 함께 영국에서 차인표와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매년 개최될 '옥스퍼드 한국문학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문화와 작가들이 유럽에 소개되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필수 도서로 선정된 작품은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다. 이 작품은 당초 2009년 '잘가요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가 제목을 바꿔 2021년 재출판됐다. 고국을 떠나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수니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담은 이야기로,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책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왼쪽)와 신애라 부부.

위안부 다룬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하며 써내

문제를 다뤘다. 차인표는 '잘가요 언덕'을 시작으로 2011년 '오늘에도', 2022년 '인어 사냥' 등 세 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다.

아울러 차인표는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조지은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회 '옥스퍼드 한국 문학 페스티벌'(Korean Literature Festival)에 초청돼 강연했다.

차인표는 자신의 책이 10여 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아 영국의

독자를 만나게 돼 기쁘다는 소감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흔 할머니를 보고 책을 구상했으며 완성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던 차인표는 부정적 감정만으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에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글을 썼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편 뛰어넘은 '인사이드 아웃 2'

주말 동안 100만명 관람... 박스오피스 정상 지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 후 세 번째 주말에도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흥행몰이를 이어갔다.

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 주말 사흘간(6월 28~30일) 101만 3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51.1%)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563만9000여 명으로 전편 '인사이드 아웃'(2015)의 최종 관객 수(497만명)를 뛰어넘었다.

극장가에선 지난해 국내에서 흥행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엘

리멘탈'의 기록(724만명)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이드 아웃 2'가 독주하는 구도에서 한국 영화 두 편이 2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하정우·여진구 주연의 '하이재킹'은 지난 주말 33만1000여 명(16.8%)이 관람해 2주 연속 2위를 지켰지만, 이성민·이희준 주연의 '헛심가이즈'가 개봉 후 첫 주말을 맞아 32만9000여 명(16.4%)을 동원하며 바짝 뒤쫓고 있다.

일일 관객 수로 보면 '헛심가이즈'는 주말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



극장 상영 중인 '인사이드 아웃 2'

일 14만5000여명을 모아 '하이재킹'(13만2000여 명)을 제쳤다.

이번 주에는 '인사이드 아웃 2'의 독주 구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2일. Includes a horoscope for the 29th and 30th,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advice.